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소비행태 및 관련변인

정미정* · 이연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The Adolescents' Consumer Knowledge and Consumption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Jung, Mi-Jung* · Lee, Yon-Suk**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adolescents' consumer knowledge and consumption behavior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m. The sample of this study is 640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kyunggi province. The data a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ird grade students and the female students get higher scores in the consumer knowledge compared with the first grade and the male students. Other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consumer knowledge are occupation of parents, education level of mother, household income and GPA. Second, the consumption behavior of students is moderately resonable and affected by sex and grade of students, education level of mother, household income, and GPA. Third, the adolescent's consumer knowledge affects their consumption behavior.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4% to 9% of variances of sub categories of the consumption behavior are explained by the level of consumer knowledge. Since the consumer knowledge learned at schools is rarely transferred to the reasonable consumption behavior, the systematic and relevant consumer educat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stages of adolescents is required in the future.

Key word: 학교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 in Schools), 소비자 지식(Consumer Knowledge), 소비행태 (Consumption Behavio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부모에의 의존기와 독립기 사이의 접합시점으로 소비자사회화(Consumer Socialization)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의 잘못된 소비자특성이 고착되어 성인기로 연장,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올바른 소비자사회화가 확립되기 위해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김지희, 1989). 청소년들은 소비자집단으로서 경제의 제반 측면에 걸쳐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하며 앞으로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역할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기춘(2000)은 “학교교육이 가치형성 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학교중심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소비자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특히 소비생활의 가치관 형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며 학교 소비자교육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교육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교육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소비자교육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등(이기춘, 2000) 소비자교육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데 초석이 되는 다양한 연구업적들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소비행동을 과소비, 충동소비 등의 비합리적 소비행동 측면에서만 바라보거나 혹은 그들의 소비행동을 산술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일차적인 분석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학교 소비자교육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실제 소비생활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소비자들의 소비자지식 수준의 정도와 소비행태는 어떠한 수준에 있으며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학교 소비자교육

에서 습득한 소비자지식이 청소년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합리적 소비자로서 소비자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소비행태는 차이를 보이는가?
-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과 소비행태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4)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소비자교육의 의의와 관련 선행연구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과 지식, 태도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소비자 수행능력(Consumer Competency)을 개발시키는 인간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소비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습득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은 교육목표가 수립되고 교육내용이 설정되기 때문에 단계적·체계적·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교육이 가능하다(이기춘, 2000).

소비자교육의 목표는 학교 교육의 장에 적용되어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태도, 기능을 교육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특히, 중학교 소비자교육의 세부적인 교육목표는 지식의 측면에서는 소비생활 환경의 추상화된 형태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며, 기능측면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독립적인 소비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기능을 숙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자신의 행위가치를 제한된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의 실현을 위한 행동 동기화와 기본자세의 배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태도함양을 목표로 한다(이득연·송순영, 1993).

중학교에서는 소비자교육 내용이 주로 기술·가정, 사회, 도덕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학년별 소비자교육 관련 내용의 비중이 적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중학교 2학년으로 편중되어 있어 학교 소비자교육의 연계적인 학습을 저해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비중의 증가와 아울러 교과내용의 효과적인 분산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교육 종합발전 계획(2004)'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지식 중심의 소비자교육은 사회 교과에서, 의식 중심의 소비자교육은 도덕 교과에서, 기술 및 실행 중심의 소비자교육은 기술·가정 교과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소비자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에서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도덕 교과에서는 바람직한 소비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사회 교과에서는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적·사회적으로 당면하는 경제 문제를 이해하게 하는데 주력하며, 소비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타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이나 원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기춘, 2000).

장명실(1987)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소비자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소비자의식 수준이 높지 않으며 소비자로서의 태도도 적극적이지 않

다고 하며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청소년의 소비행동에 따른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황현선(1996)은 소비자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소비자교육 정보에 더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 소비자의식 수준이 높으며 소비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원향(1997)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소비자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용돈 사용 전에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정도가 높아져 충동구매 경향이 낮아지고, 저축하는 정도가 높아지며, 물건 구입할 때에 품질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전관리와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남경(1998)은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적인 소비자의식면(소비자권리, 소비자책임, 소비자교육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바람직한 구매행동을 보였으나 학교에서 실시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론에만 그치는 소비자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필요에 의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년별 소비자교육 실태를 연구한 임계옥(2000)은 학년이 높을수록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 소비자교육은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며 이에 따라 내용의 강화 및 개선방안, 실생활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교육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비자 지식의 의의와 관련 선행연구

소비자지식은 소비자능력의 구성요소 중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이며, 중요하다(정진화, 1985). 즉, 소비자지식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나타내며 소비자의 시간과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

자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조영숙, 1993).

이기춘(1985)은 소비자지식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소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소비자능력을 구성하는 인지적 영역으로 경제사회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실(facts), 개념(concepts) 및 관념(idea)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일반경제지식: 국민경제의 구성, 인플레이션, 상품가격, 국민총생산, 경제원칙, 조세
- ② 금전관리·투자지식: 예산, 저축, 금전 지불, 여가의 이용, 보험, 투자
- ③ 컨슈머리즘지식: 소비자권리, 소비자법, 소비자 보호단체, 소비자와 판매가격, 소비자기만, 소비자고발
- ④ 구매지식: 구매의사결정, 할부구매방법, 식품구매, 가구구매, 의복구매, 주택구매

김영옥(1999)은 소비자지식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교육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제 영역을 준거로 제시하였다.

- ① 소비자의식: 소비자개념, 욕구와 희소성, 소비가치와 생활양식, 사회성원으로서의 소비의식
- ② 금전 관리: 화폐와 구매력, 소득(용돈)의 소비, 저축과 신용
- ③ 구매: 구매의사결정과정, 구매 시 주의점, 경제원리, 상품과 상점, 광고
- ④ 개인 및 공공자원의 사용: 개인자원의 사용, 공공시설의 이용
- ⑤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소비자권리와 책임의 소개, 안전 관련 권리와 책임, 정보 및 선택 관련 권리와 책임, 환경 관련 권리와 책임, 소비자보호법과 기구, 소비자문제와 해결과정

천경희(198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비자지식은 사회화 작용요인인 부모·동료, TV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기춘(1985)은 청소년 소비자능력 측정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소비자지식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구매지식 수준이 낮고 학년, 지역, 부모의 직업, 아버지의 학력, 자유재량 소비액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소비자의 지식 및 행동의 실상을 연구한 정진화

(1985)는 소비자지식은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금전관리 부문의 지식이 비교적 높은 대신 구매품목과 관련된 지식정도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지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농촌거주자보다 서울시내 학생들에게서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인숙(1988)은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이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고, 계열별 비교에서는 인문계, 상업계, 산업체 순으로 높다고 하였다. 조영숙(1993)은 어머니와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자지식 수준이 높고,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소비자로서의 주체적인 인식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소비자지식의 의의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소비자지식은 학년, 성별, 부모의 직업과 학력, 지역, 계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이 낮음을 우려한 연구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 교육을 통한 소비자지식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지식은 경제사회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소비자시민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능력, 즉 5개의 범주로 분류한 학교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말한다. 5개의 범주는 중학교 기술·가정, 사회과 소비생활 영역 교과서 분석과 배운정(1999)이 체계화시킨 정보화 사회의 소비자교육 내용을 재구성한 이승신(2003), 김영옥(1999)의 내용 영역표를 참고로 재구성하여 ① 일반경제지식, ② 금전관리지식, ③ 구매지식, ④ 컨슈머리즘지식, ⑤ 자원 활용 지식의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소비자 행태의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

소비행태는 소비행동을 하는 태도를 말하며 소비자행동과 혼용하여 사용된다. 즉 소비행태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를 획득·사용하는 태도를 말하며, 의사결정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소비행동 양상이라고 하겠다.

청소년 소비문화는 성장과 정상의 과도기적 특성과 연결되어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소비성을 갖는다. 청소년기는 소비자사회화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이 기간에 형성된 소비자행동 유형은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영옥, 2005). 따라서 청소년 소비자를 미래의 현명한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비가치관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소비생활 양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간혹 지불 유예적 시기(moratorium)라 불리 우며 이 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혼란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표출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이재은(198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소비자기능 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소비자행동이 진전하였으며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구매행동 시 가격비교에 소홀하였다. 정진화(1985)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비자행동에서 더 합리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비자기능 수준이 높다고 한 이기춘(1985)의 연구는 김영옥(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특히 소비자 역할태도와 소비자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신남경(1998)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구매성향을 보이고, 올바른 지출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다. 성지은(199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용돈관리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도 학생들 대부분이 용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소비생활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양영심(1998)은 금전관리 및 상품사용에 있어서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용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며 물건을 아껴 쓰는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학년일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돈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나

소비자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소비행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학생(만13~15세)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의 소비행태는 ‘소비자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비자 행동의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소비행태의 측정 하위영역은 소비자지식에 기초한 ① 금전관리, ② 구매, ③ 컨슈머리즘, ④ 자원의 활용의 4개 영역에 대한 청소년의 소비성향으로 실제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소비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조사는 중학생들의 소비행태를 알아보고자 경기도 동두천시, 안산시, 부천시와 평택시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6년 10월 2일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적합한 문항을 수정하여 설문지 문항을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각 학교급 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씩 임의로 반을 선정하여 남·여 중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소비관련 지식이 소비행태에 활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수로 학년의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학교에서 소비자교육을 받지 않은 1학년과 소비자교육을 받고 있는 3학년을 비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배포한 750부 중 698부가 회수되었고, 최종 640부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조사 도구

소비자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소비자교육 영역을 일반경제지식, 금전관리, 구매, 컨슈머리즘, 자원의 활용의

5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척도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이기춘(1985)이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소비자지식척도 25문항 중 해당 영역의 문제를 선별하고, 기술·가정과와 사회과 교과서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문항의 형태는 O, X로 답하는 문제 10문항, 5지선다형 문제 15문항, 그리고 단답식 2문항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3점, 4점, 5점을 부여하여 0점 ~ 100점의 분포를 갖도록 하였다. 소비자지식 문항의 크론바크(cronbach) α 신뢰도계수를 산출한 결과 .793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행태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5개 소비자교육내용영역 중에서 일반경제지식을 제외한 4개의 영역에 대한 중학생들의 소비행태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김성례(2001), 송휘석(2004), 한국청소년개발원(2003)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수정한 김영옥(2005)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총 20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항상 한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로 4점에서 1점까지 분포하도록 하였다. 부정적, 비합리적 행태를 나타내는 문항의 경우에는 역코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크(cronbach) α 계수 .740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백분율과 평균을 산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소비행태와 소비자지식 수준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사후검증은 Duncan-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소비자지식 수준과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과 소비자지식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Window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수	구 분	빈 도(%)
성 별	남	334(52.2)
	여	306(47.8)
	계	640(100)
학 년	1학년	326(50.9)
	3학년	314(49.1)
	계	640(100)
부의 학력	고졸 이하	307(48.0)
	전문대졸	34(5.3)
	대졸	213(33.3)
	대학원졸 이상	74(11.5)
	계	628(98.1)
월평균 가계 소득 (만원)	100미만	18(2.8)
	100~200미만	115(18.0)
	200~300미만	197(30.8)
	300~400미만	159(24.8)
	400~500미만	76(11.9)
	500이상	75(11.7)
	계	640(100)
학업 성적	상위권	78(12.2)
	중상위권	148(23.1)
	중위권	205(32.0)
	중하위권	158(24.7)
	하위권	51(8.0)
	계	640(100)
모의 학력	고졸 이하	395(61.7)
	전문대졸	28(4.4)
	대졸	162(25.3)
	대학원졸 이상	49(7.7)
	계	634(99.1)

<표 계속>

변 수	구 분	빈 도(%)
주관적 계층 의식	최상층	24(3.8)
	중상층	98(15.3)
	중간층	376(58.8)
	중하층	117(18.3)
	하층	25(3.9)
	계	640(100)

2.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 및 소비행태

1)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 및 하위영역별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의 여부는 p<.05수준에서 Duncan-test를 하였다.

소비자지식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56.6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소비자로서 지식을 학습할 기회가 적고, 부모, 교사, 사회기관 등으로부터의 적절한 모델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지식 수준이 낮다고 한 Moor와 Stephens(1975)의 연구결과에 상응한다.

소비자지식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일반경제에 대한 지식이 10.36점(18점 만점), 금전관리 지식이 10.63점(18점 만점), 구매에 관한 지식이 16.09점(28점 만점), 컨슈머리즘에 관한 지식이 8.50점(18점 만점), 자원 활용에 관한 지식이 11.04점(18점 만점)으로 하위영역 중

소비자권리와 책임 등에 관한 컨슈머리즘 지식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

소비자지식 수준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평균 51.8점으로 3학년의 61.69점보다 낮으며(<표 2> 참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든 하위영역에서 3학년이 1학년보다 적게는 0.42점에서 많게는 4.3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금전관리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이(p<.001,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라 1학년에 비해 3학년의 영역별 소비자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소비자지식이 높다고 밝힌 이기춘(1985), 정진화(1985)의 연구결과와 학년별로 소비자지식 수준의 지속적 상승을 밝힌 Stanley(1976)와 Moschis(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이인숙, 1988 제인용).

소비자지식 수준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100점 만점 중 여학생의 평균이 60.53점으로 남학생의 평균 53.10점보다 높게 나왔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t값에서도 p<.01과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 소비자지식과 모든 하위영역의 지식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재선(2003)의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나 성별에 따른

<표 2> 학년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 (N=640)

	1학년		3학년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비자지식총점	51.80	16.19	61.69	19.99	-6.86***	
소비자 지식	일반경제	8.94	4.10	11.82	4.93	-8.03***
	금전관리	10.46	4.25	10.88	4.89	-1.16
	구 매	13.98	6.67	18.28	7.28	-7.77***
	컨슈머리즘	8.06	4.03	8.96	4.48	-2.66***
	자원 활용	10.36	4.47	11.75	4.75	-3.82***

p<.01 *p<.001

〈표 3〉 성별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 (N=640)

	남		여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비자지식총점	53.10	19.19	60.53	17.60	-5.09***	
소비자지식	일반경제	9.82	4.80	10.94	4.63	-3.00**
	금전관리	9.99	4.45	11.40	4.61	-3.94***
	구 매	14.67	7.86	17.63	6.28	-5.28***
	컨슈머리즘	8.04	4.28	9.00	4.22	-2.86**
	자원 활용	10.57	4.70	11.55	4.56	-2.66**

p<.01 *p<.001

소비자지식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이기춘(1985), 정진화(198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2) 기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

부모의 직업 및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학업성적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은 <표 4>에서와 같이 금전관리지식과 구매행동지식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p<.05),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구매행동지식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1).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기술직과 고용생산직, 고용판매직, 무직 일 때 금전관리지식이 다소 높았고, 전문기술직, 자영상인, 무직 일 때 구매행동 관련 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고용생산직과 자영상인인 학생들의 소비자지식 수준이 높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즉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소비자지식 총점과 구매행동지식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5, p<.001). Duncan 사후검증 결과 소비자지식 총점과 구매행동지식은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과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금전관리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백선옥(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소비자지식영역 중 구매행동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나타났는데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계와 300 ~ 400만원인 가계의

〈표 4〉 기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 (N=640)

변수	집 단	소비자지식총점			소비자지식														
					일반경제지식			금전관리			구매행동			컨슈머리즘			자원의 활용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부의 직업	전문직	52.37			9.59			9.83		ab	14.97		ab	8.12			9.86		
	경영관리직	56.35			10.47			10.44		ab	15.25		ab	9.10			11.09		
	전문기술직	59.84			10.68			12.32		b	17.80		bc	8.39			10.66		
	사무직	56.75			10.09			10.64	*	ab	16.14	*	b	8.76			11.13		
	자영상인	57.94			10.79			10.60		ab	16.85		b	8.43			11.26		
	고용생산직	59.48	1.76		11.14	.90		11.51	2.23	b	16.58	2.04	b	8.42	.97		11.84		
	고용판매직	56.57			10.29			11.86		b	14.57		ab	8.14			11.71		
	무직	67.50			10.50			12.50		b	23.50		c	10.50			10.50		
	기타	40.86			8.86			6.71		a	9.14		a	5.14			11.00		1.12

<표 계속>

변수	집단	소비자지식총점			소비자지식														
					일반경제지식			금전관리			구매행동			권슈머리즘			자원의 활용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모의 직업	전문직	50.35			10.40			9.25			12.95		ab	8.15			9.60		
	경영관리직	50.47			11.06			9.88			12.06		a	8.00			9.47		
	전문기술직	51.86			9.22			11.00			14.14		ab	7.78			9.73		
	사무직	55.01			9.86			10.67			15.36	**	abc	8.46			10.66		
	자영상인	60.04	1.50		11.01	.80		11.44	.76		17.23	2.58	bc	8.63	.35		11.73	1.42	
	고용생산직	60.15			10.04			10.93			19.00		c	8.70			11.48		
	고용판매직	58.54			10.54			10.50			16.48		abc	9.20			11.83		
	주 부 기 타	56.87 56.43			10.35 11.86			10.48 10.00			16.40 14.71		abc abc	8.49 8.86			11.15 11.00		
부의 학력	고졸이하	57.14			10.41			10.61			16.47			8.48			11.18		
	전문대졸	55.79	.19		11.03	.27		10.41	.16		16.47	.76		8.79	.09		9.09	2.40	
	대졸	56.81			10.24			10.80			15.91			8.60			11.25		
	대학원졸 이상	55.47			10.39			10.86			15.41			8.42			10.66		
모의 학력	고졸이하	57.67		b	10.43			10.73			16.74		b	8.56			11.22		
	전문대졸	56.11	*	b	11.68			9.71			16.96	***	b	7.21			10.54		
	대졸	56.30	2.94	b	10.03	1.26		11.01	1.92		15.49	6.34	b	8.64	.93		11.14	2.09	
	대학원졸 이상	49.29		a	9.76			9.43			12.20		a	8.39			9.51		
가계 소득	100미만	57.06			9.56			10.22			17.67		a	8.28			11.33		
	100~200미만	55.74			9.76			10.50			16.24		a	8.28			10.96		
	200~300미만	55.37			10.15			10.63			15.55	*	a	8.18			10.86		
	300~400미만	60.19	1.84		10.97	1.80		10.79	.51		17.47	2.21	a	9.31	1.85		11.64	.99	
	400~500미만	53.39			9.83			10.22			15.20		a	7.84			10.30		
	500이상	57.12			11.24			11.29			14.85		a	8.69			11.04		
계층 의식	최상층	51.29			9.88			10.00			14.33			7.92			9.17		
	중상층	56.86	.73		11.04			10.85			15.40			8.51			11.06		
	중간층	57.04			10.39	1.08		10.55	.87		16.47	1.00		8.58	.19		11.05	1.17	
	중하층	57.03			10.01			11.21			16.06			8.34			11.41		
	하층	53.36			9.24			9.80			14.88			8.56			10.88		
학업 성적	상위권	71.94		a	13.35		a	13.71		a	21.35		a	10.38		a	13.15		a
	중상위권	63.11	***	b	11.59	***	b	12.06	***	b	17.84	***	b	9.28	***	ab	12.34	***	a
	중위권	55.64		c	10.45		b	10.31		c	15.55		c	8.44		bc	10.89		b
	중하위권	49.91	41.50	d	8.84	26.01	c	9.19	23.90	c	14.18	24.40	c	7.61	10.61	c	10.08	17.24	b
	하위권	39.49		e	6.55		d	7.96		d	11.06		d	6.33		d	7.59		c

*p<.05 **p<.01 ***p<.001

▶ Duncan-test에 의하면 다른 단어(a,b)로 표현된 각 집단 간의 평균값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학생들이 구매행동 관련 평균점수가 높아 소득에 따라 지식수준이 일관성 있게 높아지는 않았다.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즉 학업성적이 높으면 소비자지식 수준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지식 총점은 모든 집단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일반경제지식은 상위권, 중상위권·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집단별로, 금전관리와 구매행동

지식은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중하위권, 하위권 집단별로, 자원 활용 지식은 상위권·중상위권, 중위권·중하위권, 하위권 집단별로 각각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은 학년별, 성별, 부모의 직업, 모의 학력, 가계소득,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의 학력과 계층의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년에 따른 소비행태 (N=640)

		1학년		3학년		t 값
		평균 ^a	표준편차	평균 ^a	표준편차	
소비행태		2.41	.39	2.40	.37	.48
소비 행태	금전관리	2.13	.54	2.10	.52	.60
	구 매	2.96	.49	2.87	.46	2.34*
	컨슈머리즘	2.25	.59	2.37	.59	-2.60**
	자원 활용	2.31	.55	2.25	.55	1.52

^a: 4점 문항 척도
*p<.05 **p<.01

2) 청소년의 소비행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소비행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의 여부는 p<.05수준에서 Duncan-test를 하였다.

소비행태 점수의 평균은 4점 문항 척도에서 2.41점으로 나타났다. 소비행태의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금전관리행태에서는 평균 2.12점, 구매행태는 2.91점, 컨슈머리즘행태는 2.31점, 자원 활용 행태는 2.28점으로 나타났다. 컨슈머리즘행태는 2.31점으로 소비자권리와 보호, 책임 등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원 활용 행태는 2.28점으로 물품을 절약한다거나 재활용 하는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소비행태

소비행태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4점

문항 척도에서 1학년이 평균 2.41점으로 3학년의 2.40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에 따른 소비행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전관리 행태에서는 1학년이 2.13점, 3학년이 2.10점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매행태에서는 1학년이 2.96점, 3학년이 2.87점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컨슈머리즘행태에서도 1학년이 2.25점인데 비해 3학년이 2.37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이와 같은 결과는 이인숙(1988)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학교 소비자교육을 받은 중학교 3학년의 소비행태가 아직 학교 소비자교육을 받지 않은 1학년의 소비행태보다 평균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왔다는 것은 3학년이 1학년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합리적인 소비자행동을 보여준 정진화(1985)의 연구결과나 학년이 낮을수록 소비자기능 수준이 높게 나타난 김

〈표 6〉 성별에 따른 소비행태 (N=640)

		남		여		t 값
		평균 ^a	표준편차	평균 ^a	표준편차	
소비행태		2.39	.39	2.42	.36	-1.00
소비 행태	금전관리	2.03	.53	2.21	.51	-4.34***
	구 매	2.87	.50	2.96	.44	-2.25*
	컨슈머리즘	2.34	.59	2.28	.59	1.14
	자원 활용	2.33	.57	2.23	.52	2.12*

^a: 4점 문항 척도
*p<.05 ***p<.001

지희(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소비행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여학생의 소비행태 평균이 4점 문항 척도에서 2.42점으로 남학생의 평균 2.39점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금전관리영역과 구매영역에서 여학생의 소비행태가 남학생의 소비행태보다 유의미하게 합리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p < .001$, $p < .05$). 그런데 자원활용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금전관리영역과 구매영역에서의 소비행태는 여학생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지닌다고 한정진화(1985)의 연구결과와 아동소비자의 기능수준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김영옥(1987)의 연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조영숙(199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2) 기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소비행태

청소년의 소비행태가 학년과 성별을 제외한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소비행태는 금전관리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p < .01$)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계통인 집단의 금전관리 소비행태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소비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컨슈머리즘영역에서 다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 < .05$)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 학력인 집단보다 컨슈머리즘 소비행태가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구매영역을 제외한 모든 소비행태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1$, $p < .05$).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청소년의 소비행태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자원 활용 영역에서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이하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어머

<표 7> 기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소비행태 (N=640)

변수	집단	소비행태		소비행태													
				금전관리			구매			컨슈머리즘			자원 활용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부의 직업	전문직	2.43	.86		2.17	2.75	**	a	2.93	.50		2.33	1.54		2.30	.15	
	경영관리직	2.47			2.19			a	2.90			2.47			2.32		
	전문기술직	2.44			2.25			a	2.92			2.33			2.27		
	사무직	2.39			2.10			a	2.92			2.29			2.26		
	자영상인	2.41			2.17			a	2.92			2.26			2.28		
	고용생산직	2.35			1.93			a	2.93			2.26			2.29		
	고용판매직	2.42			1.83			a	2.89			2.66			2.31		
	무직	2.60			2.00			a	3.20			2.90			2.30		
	기타	2.24			1.77			a	2.60			2.17			2.40		
	모의 직업	전문직			2.47			1.50				2.15			1.29		
경영관리직		2.39	2.15		2.76	2.34	2.31										
전문기술직		2.40	2.03		2.86	2.43	2.29										
사무직		2.33	2.04		2.84	2.27	2.17										
자영상인		2.48	2.21		2.93	2.40	2.38										
고용생산직		2.37	2.00		2.96	2.28	2.22										
고용판매직		2.38	2.03		2.93	2.24	2.30										
주부		2.42	2.15		2.95	2.28	2.29										
기타		2.21	2.17		2.89	1.97	1.83										

<표 계속>

변수	집단	소비행태			소비행태											
					금전관리			구매			컨슈머리즘			자원 활용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부의 학력	고졸이하	2.38			2.08			2.95			2.25			2.23		
	전문대졸	2.43			2.09			2.81			2.40			2.41		
	대졸	2.44	1.46		2.17	1.35		2.91	1.23		2.35	*	a	2.32	2.10	
	대학원졸 이상	2.44			2.13			2.88			2.44		a	2.34		
모의 학력	고졸이하	2.36		a	2.08		a	2.91			2.24		a	2.22		b
	전문대졸	2.47	**	a	2.14	*	a	2.86			2.42	**	a	2.46	**	a
	대졸	2.49	4.53	a	2.22	3.02	a	2.91	.18		2.43	4.36	a	2.38	4.76	ab
	대학원졸 이상	2.42		a	2.05		a	2.95			2.38		a	2.31		ab
가계 소득	100미만	2.51			2.08			3.18			2.36		b	2.43		
	100~200미만	2.35			2.02			2.95			2.17		ab	2.27		
	200~300미만	2.37			2.08			2.92			2.26		ab	2.23		
	300~400미만	2.45	1.80		2.21	2.14		2.92	1.89		2.35	**	ab	2.30	1.33	
	400~500미만	2.41			2.13			2.85			2.41		a	2.26		
	500이상	2.46			2.16			2.84			2.45		a	2.39		
계층 의식	최상층	2.35			2.00		a	2.78			2.31		a	2.31		
	중상층	2.50			2.24	*	b	2.87			2.51	**	a	2.37		
	중간층	2.39	1.81		2.11	2.46	ab	2.91	1.25		2.27	3.35	a	2.25	1.02	
	중하층	2.40			2.03		ab	2.97			2.28		a	2.30		
	하층	2.43			2.18		ab	2.98			2.34		a	2.21		
학업 성적	상위권	2.53		a	2.24		a	2.94			2.56		a	2.41		a
	중상위권	2.46		ab	2.17	*	a	2.95			2.36		b	2.35		ab
	중위권	2.37	5.64	b	2.09	2.59	ab	2.87	2.03		2.26	5.58	bc	2.26	*	abc
	중하위권	2.39		b	2.08		ab	2.97			2.27		bc	2.23		bc
	하위권	2.26		c	1.99		b	2.80			2.13		c	2.12		c

*p<.05 **p<.01 ***p<.001

▶ Duncan-test에 의하면 다른 단어(a,b)로 표현된 각 집단 간의 평균값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소비행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소비자의 정보처리능력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보처리능력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박수경(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소비행태 중 컨슈머리즘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사후검증 결과 400 ~ 500만원, 500만원 이상 집단과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여 소득이 높으면 컨슈머리즘 소비행태가 바람직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금전관리와 컨슈머리즘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p<.05). 이는 학습이론 관점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고소득층 가정의 아동보다 소비자 정보처리 능력학습이 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Ward(1974)의 견해(조영숙, 1993 재인용)와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이 소비자 역할태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김선희(1991), 조영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의 소비행태는 구매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p<.05). 즉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소비행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위권은 중상위권을 제외한 모든 집단과 차이를 보였고, 중상위권·중위권·중하위권 집단은 하위권과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소비행태는 어머니의 직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서 비교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3. 소비자지식 수준과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제 변인들이 소비행태와 소비자지식 수준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는 소비자지식 총점과 소비행태 평균점수가 각각 투입되었고,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일부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은 명목변수이기 때문에 가변수 처리를 하였다. 부의 직업은 무직과 기타를 제외하고 사무직을 기준으로 5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모의 직업은 취업자와 비취업자(주부)로 분류하였으며, 월평균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5개의 집단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검사한 결과 VIF값이 1.04 ~ 2.70 수준으로 낮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지식 수준에 대하여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놓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은 학업성적, 학년, 성별, 주관적 계층의식, 부의 직업이 고용직인 경우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8.6%이다. 학업성적($\beta=.52$)이 높을수록, 학년($\beta=.27$)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beta=-.25$)이, 주관적 계층의식($\beta=-.13$)이 낮을수록, 부의 직업이 고용직인 경우 소비자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소비행태에 대하여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업성적과 어머니의 학력이 영향을 미쳐 학업성적($\beta=.17$)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13$)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7%이다.

4. 소비자지식 수준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는 소비자지식 수준의 하위영역이, 종속변수에는 소비행

<표 8> 소비자지식 수준과 소비행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622)

독립	종속	소비자지식 수준					소비행태				
		b	β	Constant	F값	R ²	b	β	Constant	F값	R ²
학년		10.09	.27***								
성별		-9.58	-.25***								
부의 직업 (사무직 기준)	전문직	-2.79	-.06	38.783	25.444	.386			2.269	2.464	.057
	경영관리직	-2.26	-.04								
	자영업인	-.35	-.01								
	고용직	4.85	.09*								
모의 직업	1.40	.04									
부의 학력	1.40	.09									
모의 학력	-1.55	-.09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기준)	200~300미만	-1.94	-.05								
	300~400미만	1.42	.03								
	400~500미만	-2.27	-.04								
	500이상	-.20	-.00								
주관적계층의식	-2.99	-.13***									
학업성적	8.73	.52***									

p<.01 *p<.001

<표 9> 소비자지식 수준에 따른 소비행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314)

독립	종속	소비행태전체		금전관리행태		구매행태		컨슈머리듬행태		자원활용행태	
		b	β	b	β	b	β	b	β	b	β
소비자 지식	일반경제지식	5.32E-03	.07	1.29E-02	.12	5.15E-03	.06	6.68E-04	.01	2.55E-03	.02
	금전관리지식	1.60E-02	.21**	1.61E-02	.15*	8.03E-03	.09	2.32E-02	.19**	1.66E-02	.15*
	구매지식	4.33E-03	.09	4.67E-03	.07	4.61E-03	.07	5.33E-03	.07	2.70E-03	.04
	컨슈머리듬지식	1.24E-03	.02	2.81E-03	.02	-4.70E-03	-.05	-2.76E-03	-.02	9.60E-03	.08
	자원활용지식	-1.32E-03	-.02	-7.23E-03	-.07	6.16E-03	.06	2.23E-03	.02	-6.44E-03	-.06
상수(Constant)		2.087		1.750		2.607		2.013		1.978	
R ²		.095		.066		.041		.057		.040	
F값		6.502***		4.349**		2.615*		3.735**		2.575*	

*p<.05 **p<.01 ***p<.001

태의 평균점수와 하위영역이 각각 투입되었다. 단, 소비자 지식 총점에 대하여 VIF계수가 12.991로 높게 나와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어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행태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전관리 지식(β=.21)으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행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의 소비행태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9.5%이다.

소비행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금전관리 행태에 대해서는 금전관리지식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금전관리 지식수준(β=.15)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금전소비행태를 보이며 6.6%의 설명력을 갖고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구매행태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비자지식 변수는 없었다. 또한, 금전관리 지식수준(β=.19 ; .15)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컨슈머리듬 행태와 자원 활용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각각 5.7%와 4.0%이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 소비자교육을 통해 인지한 소비자지식 수준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비교적 낮고, 금전관리 지식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올바른 소비자지식 내용을 소비행태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뜻하며 학생들에게 실제 소비생활에서 학교 소비자교육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학교 소비자교육이 주로 지식 측면에 치중하여 이론과 실체가 접목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소비행태와 소비자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학교 소비자교육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요건을 규명하고, 학교 소비자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도방안을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소비자의사결정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지식의 꾸준한 함양이 요구된다. 특히, 소비자 지식 중 컨슈머리듬 영역의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교 소비자교육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컨슈머리듬 영역이 학생들에게 정확한 인지전달이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권리와 책임, 소비자피해 문제에 대한 지식함양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역할놀이(판매자와 구매자) 등을 통해 소비자주권의 실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친숙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년과 성별에 따라 소비자지식 수준이 차이가 난 결과에 비추어 학생들의 인지단계를 고려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흥미도를 고려한 교육

통하여 성별에 따른 지식의 편중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교육을 받고 있는 3학년의 소비행태가 소비자교육을 접하지 않은 1학년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는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문제 중심 수업을 추구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소비행태가 합리적인 양상과 비합리적인 양상이 공존하는바 비합리적 소비행태의 취약점을 수정·극복하고, 바람직한 소비행태를 형성·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소비행태에서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대부분의 구매와 소비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 어머니의 소비패턴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주관의 사회·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머니대상의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부모들이 올바른 소비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학교 소비자교육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지식 수준이 소비행태 및 각 하위영역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다소 미약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지식을 소비행태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육실효성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소비자교육이 아는 것에만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주체적인 비판의식을 심어주고, 소비자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 배운 소비자지식이 올바른 소비행태로 이행되는 수준이 낮으므로 소비자교육에 대한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 당면한 소비문제와 비합리적인 소비패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교육내용과 실제 소비생활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차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비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이외의 다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효과적인 변인통제를 통한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행태로의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적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학년과 성별이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소비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볼 때 청소년의 인지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지역의 1학년과 3학년의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차후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 지식을 측정하는 척도가 선행연구와 현행 기술·가정 교과와 사회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기 때문에 표준화된 척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차후 연구를 위하여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소비생활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례 (2001). *사회과 소비자 교육 내용과 중학생의 소비행태와의 연계성 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1987). *아동소비자기능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9). *학교 아동소비자 교육 내용의 구성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 *청소년 소비실태와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선 (2003). *고등학생 소비자의식에 관한 조사 분석 및 소비자교육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 (1989). *어머니의 사회화수준이 자녀의 소비자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 (1990). 소비자의 사회화측면에서 본 아동소비자의 TV광고처리능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윤정 (1999). 정보사회의 소비자 교육 내용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옥 (1990). 청소년소비자의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와 경북 안동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지은 (1995). 중학생의 소비 형태와 학교 소비자 교육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휘석 (2004). 중학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자교육 실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남경 (1998). 중·고등학교의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소비자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심 (1998). 중학생 소비자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춘 (1985). 소비자 능력 개발을 위한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0). 소비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문사.
- 이득연·송순영 (1993). 소비자 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 집필 방향. 제6차 교육과정 개편 대비.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보고서.
- 이승신 (2003). 7차 교육과정의 학교소비자 교육내용 분석: 중학교 1,2학년 기술·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231-248.
- 이인숙 (1988).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은 (1980). 어머니와 자녀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계옥 (2000). 중학생의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실 (1987). 우리나라 청소년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화 (1985).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소비자행동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 (1993). 어머니의 소비자 역할수행이 자녀의 소비자지식 및 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향 (1997).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자 기능과 소비자교육간의 관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경희 (1985).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 조사보고서.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초·중·고 교과과정 및 내용상의 소비자 교육 확대 방안.
- 황현선 (1996). 청소년의 소비 형태에 따른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oore, R. L. & Stephens, L. F. (1975). Some Communication & Demographic Determinants of Adolescent Consumer Lear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 p80-92.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과 소비행태를 조사하고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자 경기도 소재 중학교 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청소년의 소비자교육내용을 5개의 범주(일반경제지식, 금전관리, 구매, 컨슈머리즘, 자원의 활용)로 유형화하고, 이에 기준하여 소비자 지식과 소비행태를 측정하였다. 소비자지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소비자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의 직업, 모의 학력, 가계소득,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비교적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었고, 용돈기입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노력을 하지 않는 측면도 나타났다.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은 소비행태와 각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설명력이 4 ~ 9%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소비자교육에서는 소비자지식을 소비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능력을 배양하고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3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7월 10일